

## 덕질이야말로 쓸데없는 짓 아닐까요?

건담 덕후, 게임 덕후, 애니메이션 덕후...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런 데다 시간과 돈을 왜 그리 많이 쓰나 싶지. 뭔가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마니아(mania), 우리말로로는 덕후라고 하잖아.

덕후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 웬만한 노력으로는 덕후가 되기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덕후적 경험(maniac experience)은 다들 해보고 싶어 해. 더구나 예전엔 덕후가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는데, 요즘은 취향을 중시하다 보니 덕후에 '취향 전문가'라는 인식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 '덕후적 경험' 선사하기에 주목해야겠지? “나도 해봤어”라는 경험은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거든.

예전에 집에서 커피 마시려면 커피가루와 프림, 설탕에 더운 물을 부어 먹었는데, 요즘은 포트에 물을 끓여서 드립용 주전자에 옹근 다음, 저울에 서버와 드리퍼를 올리고, 필터를 접어 끼운 후, 원두를 적정 굵기로 갈아서, 물온도를 섭씨 92도에 맞춰 핸드드립해서 마시잖아. 이런다고 정말 커피 덕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덕후 비슷한 경험은 해볼 수 있지.

라파Rapha는 통풍이 잘되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한 사이클 선수용 옷이야. 일반인이 입기엔 몸에 딱 달라붙어서 남사스러운 면이 있지. 하지만 요즘 사이클 타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도 라파를 입어야 제대로 된 복장으로 여겨. 초보라면 클래식 저지에 빙샷, 조금 탄다는 사람이면 반팔 저지에 팔토시와 바람막이 질렛, 하의는 빙샷에 니워머. 쌀쌀한 날씨엔 긴팔 융저지와 질렛, 하의는 겨울용 빙 혹은 동계용 빙샷, 그리고 니워머 또는 레그워머, 신발은 토커버와 슈즈커버를 덮어야지.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해. 덕후의 세계에 빠져드는 재미가 쏠쏠하겠지만, 그게 다 돈이야.